

고창군, 지역 기업 판로개척 지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협약 中企·소상공인 등 애로 해결 사회적경제기업 등 동반 성장

고창군이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손을 잡았다. 고창군은 지난 16일 고창군청에서 심덕섭 군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을 비롯해 군과 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청년경제인 등의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을 위한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 판로개척과 기술력 확보 ▲그밖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제반사항 등이다.

협약을 통해 군과 진흥원은 지역경제 파트너로



심덕섭(왼쪽 다섯번째)고창군수와 윤여봉(왼쪽 여섯번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창군 제공>

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망 역할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

업·청년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우리 지역경제가 활력이 넘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 독립운동가 발굴 나섰다

발굴·서훈신청 TF 첫 회의... 연말까지 신청기간 운영

고창군이 지역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고창군은 최근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 및 서훈신청 TF팀(이하 TF팀) 구성에 따른 위촉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팀은 고두성씨 등 독립유공자 유족과 독립운동 관련 역사문화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과 공무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총괄 분야와, 사료수집, 자료검증 및 자문 등 운영체계를 구성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식에는 고창출신 독립운동가 발굴에 뜻과 지혜를 함께 모을 민간위원 8명을 대상으로 심덕섭 군수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회의 등을 통해 향후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

졌다. 첫 회의에서는 고창출신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후손찾기 추진계획과 관련해, 앞으로 TF팀의 주요역할 및 추진업무 등 심도 높은 토론이 이어졌다.

고창군은 올해 말까지 독립운동가를 찾기 위한 군민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TF팀 운영을 통한 자체 기본조사를 추진한 후 연구용역 등을 추진해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체계적인 공훈 발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의향 고창"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발돋움하기 위해 TF팀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공공비축미 매입 시작

12월 1일까지 6829t...가루쌀, 수입 밀가루 대체 올 첫 매입

정읍시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 확정에 따라 산물벼를 시작으로 2023년산 공공비축미 6829t을 매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올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신동진, 새청무, 바로미2 품종이며, 매입 규모는 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 501t과 수확 후 건조·포장

한 '포대벼' 5393t(40kg기준 9000포), '가루쌀' 935t이다.

특히 가루쌀은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수입 밀가루 대체를 위해 올해 처음 매입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달 27일까지 영원 RPC를 비롯한 정읍

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시설 7개소에서 산물벼를 매입한다.

건조된 가루쌀벼와 일반벼는 수확시기와 품종 혼합방지를 고려해 이달 23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전국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으로 결정된다. 지급 방식은 매입 직후 40kg 기준 포대당 3만원의 중간 정산금을 선지급하고, 12월31일 평균 가격에 따른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어르신들, 단풍철 앞 명소 단장



17일 정읍시니어클럽 회원 80여 명이 정읍천 일대를 청소할 재비를 하고 있다.

시니어클럽, 정읍천 정화 활동

정읍 어르신들이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지역 명소 꾸미기에 나섰다.

정읍시니어클럽(관장 박환수)은 17일 동아리 회원 80여 명과 정읍천을 찾아 환경 정화를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정화 활동은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두고 정읍의 대표 명소인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

한 인상을 심어주고자 마련했다.

이날 정읍시니어클럽의 8개 공익형 사업단 동아리 회원 80여 명이 활동에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정읍천 주차장부터 샘골 다리까지 300m 구간을 걸쳐 쓰레기를 주웠다.

정읍시니어클럽은 다음 달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와 '겨울나기 정읍사랑 김장 나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내 아바타로 남원 관광

남원시, 메타버스 페스티벌 참가 관광·게임 등 콘텐츠 선보여

남원시가 '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KMF 2023'에 참가해 웹툰 스타일의 독창적인 플레이남원 메타버스를 선보였다.

시가 KMF 2023에서 선보이고 있는 플레이남원은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광한루원을 다양한 캐릭터와 함께 가상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창적이고 귀여운 그림체로 구현한 2.5D 가상공간에서 나만의 아바타로 친구들과 함께 광한루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관광정보와 스토리 전개를 통한 추리게임을 즐길 수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사용하기 적합한 콘텐츠다.

'KMF 2023'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



남원시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고 있는 '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KMF 2023'에 참가해 설치·운영 중인 '플레이남원관'.

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KMF 2023에 참가해 메타버

스는 매체로 많은 분들에게 관광유원과 지역문화를 알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를 위한 관광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남원서 농아인·건청인 '소통의 시간'

시 '수어문화제' 개최...체험 부스·경연대회로 관심 유도

남원시가 수어를 통한 농아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시민들의 수어에 대한 이해 및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2023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지난 14일 예루원 마당에서 열린 행사는 지역 농아인과 그 가족은 물론 시민과 함께하는 속에 펼쳐졌고 농아인과 건청인이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특히 수어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제공은 물론 수어 경연대회와 공연 등이 이어지며 수어보급 확대에 기여했다.

시는 한 주간의 시정소식을 수어와 사진, 자막 등으로 구성된 수어 홍보 동영상 제작에 매주 1회 시 홈페이지와 시 공식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업로드하면서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시정정보 접근을 돕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수어문화제를 통해 농아인과 건청인이 함께 소통하며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청각·언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멀고 먼 옛날의 사람들은 완행열차로 떠나갔는데



전원범 문학 인생 60년 기념 전원범 문학 전집(시·시조·동시·선집) 출간

전원범 문학 전집은 시 325편이 담긴 「망초꽃으로 서서」, 시조 214편으로 구성된 「선운사 동백꽃」, 동시 281편을 수록한 「둥근해를 공굴리며」 그리고 대표작을 엄선한 「전원범 문학선 99」 등 총 4권이다. 전 시인은 1960년대부터 동시도 시가 꽤야 한다고 선구적으로 주장하고 '동심의 시'라는 개념을 정립해 오늘날 동시의 수준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 <연합뉴스> 2023. 4. 27.

그의 시론을 압축하면 '시는 어렵지 않아야 한다. 시는 일상의 말이 아니다. 시어는 시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해석된 말'이라는 주장이다. - <뉴스 1> 2023. 4. 29.

'해의 시인'이라는 별칭은 그가 발표한 연작시 '해'에서 비롯됐다. 모두 70여 편을 썼고 해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광주일보> 2023. 4. 26.

전원범 문학 전집 세트 총 4권, 100,000원

- 「망초꽃으로 서서」(시 전집)
- 「둥근해 공굴리며」(동시 전집)
- 「선운사 동백꽃」(시조 전집)
- 「전원범 문학선 99」(작품 선집)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 판매 중

타임기획 대표 전화 031) 915-0242
www.timecoms.co.kr

